공생세(共生世)의 천물천탑(千物千塔)[1]

배우리
월간미술 기자

1) 이 글은 월간미술 2021년 1월호에 수록되었던 것으로, 저자의 동의하에 재수록함을 밝힙니다.
2) 황호균 전남대박물관 학예연구사에 따르면 'X'자 무늬는 마름모의 확장·변형이며 금강석의 빛을 상징한다고 한다. 탑의 배치 또한 이 문양을 기초로 한다. 또한 그는 천불천탑의 조성 시기를 원 간섭기인 13~14세기로 보고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언급한다. 출처: 〈전남일보〉 〈황호균의 사찰문화재 바로알기 17〉

20세기 남한미술의 두 축이자 대결 구도인 민중미술과 모더니즘 사이에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했다고 평가받는 최정화는 현재 전 세계를 누비는 공공(공동)설치미술 작가로 대활약하고 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작가'라는 호칭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잡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모두가 예술가'라는 공공연한 거짓말을 진심으로 말한다. 아직도 진심인지 영리한 예술가의 화법인지 구분되지 않지만 작가는 "언젠가 정말로 모두가 예술가가 되면 전시를 그만두실 건가요?" 하는 기자의 물음에 "물론"이라고 답한 적이 있다. 어쨌든 이번 전시 〈살어리 살어리랏다〉에서도 "당신이 기념비입니다" "너 없는 나도 없고, 나 없는 너도 없으니" "누구나 예술을 이미 알고 있다"와 같은 주문을 전시장 곳곳에 널어놓았다. 회화를 일찌감치 폐기한 그는 그렇다고 설치미술에 바로 뛰어든 것도 아니었다. 광고를 찍었으며 인테리어 업자로도 활동했다. 아마 그때 느꼈을 것이다. 그는 절대로 고급 줄에 낄 수 없음을. 1980년대 세계화 물결 속에 남한에 당도한 소위 고급스러운 서양문물은 그의 눈에는 모두 '키치'였을 터. 그걸 두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고급'은 애초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때부터 아줌마의 잡기를 품은 시장의 물건, 마감, 색감과 조형을 적극 차용했다. 그리고 전시장에 물건 폭격을 가한다. 골라, 골라. 잔뜩 쌓아놓고 네온사인 반짝, 꽃 활짝 "삐끼" 한 번이면 사람들은 "미끼"를 덥석 문다.

모두가 작가인 곳, 작품이 널브러진 곳은 시장만이 아니다. 최정화 작가는 운주사(運舟寺/雲住寺)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곳은 작가의 '쌀기', 그리고 '허접한 꽃들의 축제'가 어떤 반항이나 키치가 아닌 원형(原型) 추구임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번 전시 중에도 그는 "정말로 어릴 때부터 베끼고 흉내 냈던 게 운주사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에 응해주는 비평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운주사, 그 먼 곳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작가가 던져주는 미끼가 워낙 많거니와 아무래도 기묘한 것에는 지식이 다가갈 수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신비주의에 관심 있는 기자가 지면을 빌려 천불천탑(千佛千塔) 운주사를 짧게나마 소개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창건 설화는 여러 가지다. 그중 하나는 도선국사가 풍수지리에 근거해 창건했다는 설로, 하루 만에 천불천탑을 세우려다 새벽닭이 울어 공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실제로 산 중턱의 일명 '쌍둥이와불'은 와불 형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조각 후 미처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터에서 발굴된 기와와 문서 등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운주사가 고려 초기, 중기와 후기에 걸쳐 지어진 도량이며 정유재란 이후 폐사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석불과 석탑이 각 1000구씩 있다고 기록되어 천불천탑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언한다. 현재는 100여 분의 돌부처와 21기의 석탑이 계곡과 산에 여기저기 널려져 있다. 크기가 다양한 납작한 돌에 새겨진, 어딘가 어눌하고 거친 조각은 고려시대 지방화된 석불상의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석탑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형식을 가진 것이 많다. 발형다층석탑, 원형다층석탑은 각 층이 원형을 띠고 있고, 쌍교차문 7층석탑의 'X'자 무늬[2] 또한 낯설고 신기할 따름이다. 전문 석공이 아닌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채취한 돌을 직접 깎아 만든 석탑과 불상의 무리는 확실히 민중의 것이며 공공의 것이다. 그들은 그럴듯한 한두 개에 아우라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허접한 바보미의 축제를 한바탕 벌였다. 이 축제는 모두를 아울렀던 보편의 염원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이러한 토속성을 무지나 불능의 상태로 볼 수도 있겠다. 교과서에 이 작품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높으신 분들의 고급 취향에는 미치지 못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금강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 고유의 철학인 천지인(원방각) 조형원리로 풀어냈다는 것만 보아도 놀라운 유적이 아닐 수 없다.

이쯤에서 최정화가 자신의 탑 중 하나만 전시장에 놓는다고 생각해 보자. 이미 시간을 머금은 물건들을 견고하게 쌓아 만든 작품이 위엄을 가질 수 없을 리 만무하다(미술관 밖에 〈인류세〉는 홀로 우뚝 서있지만 이내 미술관 입구에서 흘어진 그 잔해들을 만날 수도 있다). 모더니즘과 민중미술이 결국 그럴듯한 공간에서 그럴듯한 아우라를 가지려는, 같은 목적을 지향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최정화는 높은 것과 낮은 것, 깊은 것과 얕은 것들의 위계를 흔들기 위해 절대로 '하나'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이 ('어수선한' 상태로) 같이 있길 원한다. 그런 상태여야만 모든 존재의 염원을 매개할 수 있다. 그건 재료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돌'만 신화를 담지한 존재가 아니다. 스티로폼 부표도 미세먼지도 그에게는 모두 거대한 자연의 하나일 뿐이다. "조화와 생화 중 어느 것이 일회용일까요?"라는 그의 30년 전 질문은 플라스틱을 혐오하면서도 더 강력하게 의존하고 있는 지금 더 유효한 것이 아닐까. 그는 인류를 탓하면서 동시에 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어감을 동시에 가진 "인류세" 말고 "공생세"[3]를 염원한다. 그래서 물려받은 모든 것을 전시장에 몽땅 세워놓고 와글와글한 "전생명체"의 감각을 꿈꾼다.

3) 공생세(Symbiocene)는 호주 철학자 글렌 알브레히트가 주창한 개념으로, 그는 협력체로서 상호관계성을 가진 생명을 논의하자고 제안한다. 최정화는 12월 3일 〈살어리 살어리랐다: 벌유천지〉 연계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에서 공생세, 전생명체(Holobiont) 개념을 거대한 숲 유기체와 함께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매라 칭했던 예술가의 역할을 '우드와이드웹(Wood-Wide-Web)'의 곰팡이에 빗대기도 했다.

발형다층석탑(鉢形多層石塔)은 정형적인 방형을 띠한 이형 탑으로, 주판알 모양을 하고 있다. 현재는 석고기 4개이나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6》에 따르면 7개였음을 알 수 있다. 꽤 오랜 시간 탑 주변이 논이었다는 사실은 생활에 깃든 성(聖)에 대한 무지와 무심의 경계를 오가는 속(俗)의 속성을 보여주는 광경이 아닐는지.
사진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최정화 〈석기시대〉 스티로폼 2018